

2021년 추석 예배

■ 여는 말씀(다함께) / 시편 128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 찬 송(다함께) / 찬송 382장(통432) 너 근심 걱정 말아라

1.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2.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3.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4.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후렴)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 기 도(다같이)

주님, 세상의 가장 귀한 언어로도 주님의 크고 아름다움을 찬양하기 부족합니다. 주께서 해와 달을 빛으신 그 손길로 저희를 만드사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하신 때를 따라 만물을 입히시는 주님의 돌보심으로 귀한 명절의 시간을 보냅니다. 제한된 일상이기에 마음껏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가족과 이웃, 세상을 향한 저희의 마음과 손이 서로를 향해 더욱 가까워지길 기도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인 저희가 주의 마음에 더욱 공명하여 갈등과 분열, 반목과 질시, 차별과 억압의 자리에서 신음하는 이웃의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저희의 발걸음이 쉽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말씀 낭독(다함께) / 새번역) 신명기 16:13~15절

- 13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들일 때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 14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 15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 말씀 나눔(말은이) / ‘함께 감사하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서도 추석에 해당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매년, 7박 8일에 걸쳐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두 가지의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조들이 출애굽 하여 광야에서 초막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 해 동안 거둔 곡식을 추수하게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고, 나의 풍요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감사의 실천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감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15절). 모세의 신신당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장막을 치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광야’와 ‘텐트’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 가정, 특별히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를 모토로 사는 인생은 역경에 굴하거나 영광에 자만하지 않고,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실천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14절). 구약의 다른 제사는 다 하나님께 온전히 태우는 제사이거나 제사한 후 얼마간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는 제사인데, 유독 화목제는 제사의 목적이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려운 이웃들을 초대하여 함께 잔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외된 이웃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삼대 약자인 나그네와 부모 없는 아이들, 남편 잃은 여성을 반드시 이 잔치에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이제 믿음 안에서 사랑받은 우리가 우리 가족을 넘어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계기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감사의 실천은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모든 소출과 당신들(우리)이 손을 댄 모든 일’(15절)이 아니라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고 온전히 기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족과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주실 은혜가 더 크고 위대하실 것이기에 미리 감사합니다. 과거뿐 아니라 미래까지 하나님의 은혜 잔치 안에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출과 우리가 하는 일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온전히 기뻐하는 우리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우리에게 준 가장 값진 믿음의 유산입니다.

■ 찬 송(다함께) / 찬송 428장(통488)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1.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2.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3.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4.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후렴) 주의 영광 빛난 그 광채 내게 비취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 가족 나눔 / 사랑과 격려의 말을 나눕니다.

■ 주기도문(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